발행인 박 술 음
주 간 김 영 호
편집장 이 승 환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학 보 사
TEL◎0135~9 (교환)
◎3751 (직통)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 [illegible]

# 외대학보

1969년 5월30일발행
제 137 호

Sister Paper in Foreign Languages
The Argus

(1958 · 3 · 27 제 3종우편물인가 · 허가번호 제라85호)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달풍경

정자보 고은 하늘에 천리에 걸치은 한 한란 태양이 내려쪼이는 초하의 오월이오면 만각을 흐리게 하는 애잔한 서리움에 울먹여진다 닐은드리걸치는 하늘만 뜰이나 소요롭고 일렁에 맺힌 아리움은 세월을 시샘하기에 불그러진 언어만으로는 환을 수없이 이 순간 작열하는태양같이 한란한 계절의 참미가가 그리워지는가. 「아두스」의 두 얼굴같은 지나간 날들, 생각하면가슴 저미는 데, 싱긴 미래의 설계보다는 뜻된 이제의 기원이 삶이 아닌들은 계절의 정서뿐 만을 아닐게가. <필주경희사원주요 ↓>

## 금년총학생회장선거

### 사설 학내양성화를 추진하자

6월이 되면 학생들사이에 가장 관심있는 연례행사의 하나인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맞이하게된다. 금년도의 선거일정공고등이 나붙었으나 예년에 볼 수 있었던 치열한 선거양상과는 달리 이렇다할 움직임이 포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뭇은 인사들이 학원심기 파악상에 대해 우려하던 종래까지의 인상을 다소 일신시켜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학이 진리탐구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자립을 연마하는 터전이라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야말로 본래의 숭고한 대학이념에 적극 호응하여 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대학가의 선거양상은 바깥사회에서자행과고있는 모든 수법을 너도 나도 아무런여과과정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세대를 질책하기전에 우리들은 배우는학도로서 올바른길을 걸어가는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비록 이번의 선거가 제도에 올맞아고볼수 있으나 아직까지 전적으로 만족할만한 정도는 못되고 있다. 전전치 못한 수단으로 유권자를 회유하는 모습은 학내외에서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본대학 선거규칙에 규정이된 입후보자들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한 완화를 해서선거경화를 위한 선거운동의 양상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후보자들의 학내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므로써 「캠리스」내에서만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하는 선거운동을 바깥으로까지 비화시켜급기야는 학생이라는 신분과 본분을 망각한채금전과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케되는것이다. 또한 음성적인 목표공작은 실지 우려자들과의 접촉을 가능한한 많이 시도함에는 과잉의욕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큼 학원내에서 현상태보다 좀더 선거운동을 양성화시키지 않는 이상강제적인 방법으로는 고치기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입후보자들이 유권자인 학생들과의대화를 나누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개적인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인 기회란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회 한번 밖에 없었다. 좁은 강당에 전교생을 집합하기 어렵다는 건 차치하고라도 단 한번의 소견정위로 유권자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란 실로 어렵다.

금년의 경우 1, 2학년, 그리고 3, 4학년을 위한 두번의 소견발표회를 구상했다는 건 종래의 선거풍토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숙 공정회까지 시도를 하고 있다니 차입후보자들 간의 주열이어 느껴도 나타날 것임은 물론 그동안 지조했던 선거분위기도 겉은이의 버림달게 되어오르리라 믿어진다.

그외에 벽보첨부조항등에서 보이는 지나친규제도 완화하여 다소 입후보자의 제량에 맡기는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학원선거의 정화를위해 가능한한 모든 「아이디어」는 총동원하여야겠고 비록 이 시점에서는 그다지 요청되지않는 방안이라 할지라도 그 방안을 서서히 키워나가서 우리들의 제량에 맞도록 개선해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민주정치를가진나라의 뭇선거가 다 그러하듯이 선거란 입후자들만의 당선을위한 수단이 아니라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위임시키는것이 목적이라는점을 명심하여 유권자들은 현명한 눈으로 그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입후보자들은 입후보자대로 구태의연한 형식을 벗어나서 오늘날의 신조류를 효율하는 뜻깊은 배기를 보여주어야겠다.

요는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모두가 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해서 선거의 정화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9일학생회장단선거

### 각단체서 정화운동 벌려
### 평온리에 5인후보 각축예상

◇……학원선거정화운동이 전개된가운데 의거가 오는 6월 9일 오전10시부터……◇
◇……대인 전체의 공복이되어 1969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제학생들의실 ……◇

선거관리위원회와 KUSA—UUSS, FBS, 외대학보사가 공동으로 학원선거정화 「캠페인」을 벌여 마무리되었던 예년의 선거에 비해 금년에는 유일후보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입후보선거의 진멸이필 가능성을 띠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장단선 5명으로 예상되는 입후보자들이 등록 마감일인 5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띤각축전을 벌인다.

회장선거도 결한 이번 선거는작년과 같이 「러닝메이트」방식에 의해 직권,보통,평등, 비밀투표로 6월3일 이전에 대의원장이 선관위에 통고한 2195명의 선거권자가 대표자를 선택, 투표권을 행사하게된다.

특히 금년선거에는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주견과 능력을 잘알수있는 기회를가져, 정실에 흐르침이없도록 하기 위해 6월3일에 3·4학년 그리고 6월4일에는 1·2학년을위한 합동 소견발표회를 본관 107호실에서 열고 6월5일에는 현학생회부회장과 각과과회장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제학생들이 응모한 「앙케이트」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하는 형식의 공청회를 본관 107호실에서 개최한다.

이어 6월9일에는 오전10시부터 학오 4시까지 본관 210호와 211호실에서후보를 하는데 이날학오7시경이면 답하이 판가름된다. 따라서 총학생회장 제45조의규정에의해 선거관리 위원장은 개표결과에따라 즉시 당선을 공고하고 지도교수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1970년도 1학기까지 학생자치활동의중추기관을 담당, 학생들의 권익을 방지되는 학생회장단의 당선이 확정되는것이다.

## 교지「외대학보」 6월 20일 발간

개교 제15주년 기념일에발간할 예정이던 교지 외대학보가 그동안 원고미비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는 6월 20일 출간할 예정으로 편집에착수, 인쇄에 들어갔다.

## 하기훈련앞당겨져

### ROTC…예년보다열흘쯤

금년도 ROTC하기 군사훈련이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져 7월12일부터 실시된다고 군교부에 의해 밝혀졌다.

하기훈련이 앞당겨져 실시되는데 대해 「훈련을 하는 생도들이 무더운 여름을 피하도록하기 위한 조치며,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들아오면 2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부족한데서 비롯된것일것」이라고 ROTC 생도들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군교당국의 조치로 예년 7월중순에야 시작되던 하기 방학도 열흘가량 앞당겨질것으로 해석되는데 즉간 고사일정등은 아직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교무처 관계자는 말하고있다.

본대학 ROTC자치회는 간할 예정이던 교지 외대학보가 그동안 원고미비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는 6월 20일 출간할 예정으로 편집에착수, 인쇄에 들어갔다.

## 연구보조비지급

### 문교부서…어문학계 네교수에

문교부는 지난 5월16일 금년도 학술연구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본대학의 교수 4명을 선정, 연구에 과해 통고해 왔다.

연구분야는 전공 어문학계 부문인데, 총연구비는 1백2십만원이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한 관계교수는 밝혔다.

연구교수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서우 교수
미국소설 『싱클레어 루이스』 (Sinclair Lewis) 가 사회발전에 공헌한 점』

○김 동원 교수
『D.H.로렌스의 후기소설 연구』

○시 경림 교수
『우리말과 「프랑스」어 의문구조의 비교』

○허 세욱 교수
『한국시조의 의태성과 고유성 연구』

## 학생과장구본하씨 교무과장신익하씨

본 대학 학생회장에 구본하 전교무과장이 이종택씨의 후임으로 지난 5월2일전임했다.

그밖에 신임 구과장은 지난 1월말부터 3개월간 미국무성의 초청으로 「하와이」대학서 각국대학의 행정순연구한 후 4월28일 귀학한바 있다. 한편 교무과장에관교무월반사무를 맡아보던 신익하씨가 승진발령됐다.

## 취업 희망조사

6월20일 까지

타 기관의 의뢰에 의한 추천과 본대학 졸업생의 진로등의 파악에 참고할 목적으로 「졸업예정자 취업 희망조사」를 6월 1일부터 20일간 상장실에서 실시, 4학년 학생들이능동적인 협조를 바라고있다.

## 사고

제8회 외대문학상작품모집

번역·부문·도추가·

본대학내의 역량있는 문학도의발굴과 창작 의욕을 북돋아 온바 있는 「외대문학상」이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게되었읍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번역」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시키기 위하여 번역작품 종목을 추가했아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부 문: ①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안팎)
②수필 (15매 내외)
③시
④번역작품 (제한없음)
◇마감일: 1969년 9월10일
◇발 표: 본보 10월호 특집 지상
◇상 금: ①단편소설: 당선작 10,000원 (가작4, 000원)
②수필: 당선작, 5,000원 (가작2, 000원)
③시: 당선작 5,000원 (가작2, 000원)
④번역작품: 7,000원 (가작 3,000원)
◇심사위원: 추후발표함
◇제 출 처: 본사 문화부
◇기 타: 작품제출할때 겉봉에 「외대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쓸 것.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1969년 5월30일

외대학보사

## 사랑의 열매 달기운동 학생회서 전개

「사랑실인 전국 제학대표회의 의회」(회장 고재욱) 는 제해원구호를 위한 [illegible] 일환으로 「사랑의 [illegible]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 대학 학생회에서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내 판매를 하고있는데 여기서 모금된 금액은 한계지역 학생들의 학자구호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정족수 미달로 유회

### 제1차 대의원임시총회

대의원 자문과위원과 「사무국장, 서기등에 대한 인준및 개교 15주년 기념「카니발」에 관한 결산 심의차 지난 5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던제 1차 대의원 임시총회가 제적자인 의과만수 비달로 유회되었다.

대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E과K군은 벌써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으로 피선되었으면 자기과 뿐만 아니라 제학생 전체를위해 희생을 다해야할 터인데 가볍이나 약한 지금으로서의 치단결하기는 고사하고 이러한 회의에 조차 참석치않아 스스로 권리를 포기, 전체이익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느니 차라리 대의원직을 사퇴하으라」고 분개했다.

## 영시강연회개최 영어영문학회서

지난 5월27일 본대학 영어문학회는 본관 107호실에서 「엘리암·스미드」씨를 초청, 영시강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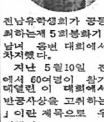
미 국회도서관 시문담 상담역인 「스미드」씨는 「2차대전 이후의 미국시」란 주제로 자국시와 그의 미국 지명시인들의 시를 낭독하며해설, 「아이트」주의가 미국시의 주류를 형성하는것이 아니며 자연의 미와인생의심미에 대한 탐구라고 말했다.

## 전석구군등우승 모의주주총회서

본대학 전석구 (무3) 군과 정윤영 (무4) 백종기 (무4) 3명은 지난 5월22일 중국대주최로 열린 제1회전국대학모의주주 총회에 참가, 질의부문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최종고수의 입술아래 참가한 이들 3명은 이번 처음으로 열린 본 대회에서 최국의 28개대학을 물리치고 우승한 것이다.

## 조세호군우승 전국남녀웅변대회서



본대학조세호(법1) 군은 최근 전국학우회와 전남유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제 5회총화기 경합전국남녀웅변 대회에서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10일 전남 보성에서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열린 이 대회에서 조군은 반공사상을 고취하는 「모반봉」이란 제목으로 수승웅변자지했다.

## 상징탑모금운동계속

### 동문후원으로부지도확경

본대학동문회와 대학당국이 의대인의 표상이될 상징탑을 건립코자 지난 3월초부터 모금운동을 전개해, 5월 30일 현재90여명의열조를 얻어40만여원을모았다.

그러나 목표액50만원의80%선에미르르고있어도서관앞정원에 대지만 정회놓고아무런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있는실정이라 앞으로계속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할예정으로 뜻있는 동문들의열의있는 후원을 바라고있다.

그동안 성금을 보내주신동문들은.

김태웅 김현남 김영호
정병준 김학수 강인덕
이재홍 오의탁 박성근
최의용 남태현 배정환
김교식 양수산 심용순
정홍택 제희문 민성기
이상준 이가현 김보연
박일수 조기성 윤태중
오한진 윤태현 김홍수
등.외외 여러분이 있으나 지면관계로자호로 미룹니다.

(사 령)

취재부장 김 형 철
명 편집부장
기 자 김 용 태
명 취재부장
기 자 주 요 식
명 문화부장
편집부장 신 현 창
문화부장 하 은 규
의원해임
1969년5월30일
외대학보사

## 「브」정부서 강사파견

### 주한「브라질」대사본대에방코밝혀

「밀론·비베이로」주한브라질 대사가 지난 23일 본대학을 예방했다.

학장실에서 있은 회견에서 대사는 본 대학에 브라질정부에서 「포르투갈」어과 강사 1인을 파견키로 하겠다고 밝히고 양국을 상호이해하는데 교무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포르투갈」어과 학생들에 대해 지대한 환심을 보였다.

## 김창활 동문당선

### 한국일보주최장편희곡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69년도 장막희곡모집에서 본교동문 김창활(D·5회)씨가 「마술사의제자」(3막)가 당선되었다. 년 문단에 「데뷰」할 이때 「마지막 인간」, 등으로 각광을 받아 요즘 김동문의 이번 작품을 극단 「신협」에서 6월17일부터 1주일간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게된다.

## 「선걸하는건가 안하는건가」…관심고조

○…한 해 앞서부터 열을 올리던 예년의 선거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선거일정이 공고되어도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않자 오히려 일반학생들이 부쩍 관심을 표명.

선거풍토에 보탤듯 지나가면서 어느 학도 할 「선장 선럴 하는건가 안하는 건가」

학원선거풍토 정화운동에 효용한다는의미에서다행한일이지만 작년까지 등장하던 막걸리 한잔이 올해따라 세상스레 그리운 (?) 모양.

○…조용한 선거분위기라지만 요즈음바학 나붙기시작한 「○○등장회」 「○○학우회」가 아무래도 수상쩍은 건 어쩔 수 없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유들들 거길 못한 (?) 학생들의 명단을 공고로 밝히겠다고 고까지 뜻을 밝아오는 판이니 뭐가 뒤진있는 모양, 여하간 하나는 알고 들은 모르는 사이비 지성인이 되지말아야지.

○…본대학에 복수의국어학과인 월남어과가 있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이고 금번 월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시 7, 8명의 월남어과 학생들이나가 국빈들을 수행하느라 수고롭답

이문 Chronicle

다. 그런데 본대학을 한번쯤 방문할 줄 알았던 교관들이 그대로 돌아가버리자 무언가 서운한 눈치.

○…「저푸른 하늘에 흰 비둘기 날아라…」 토부터 시작되는 체육시간. 그리고 또 ROTC. 한 그때도 넓지않은 「캠퍼스」를 고무나놓어 쓰기에 답답하실 분 신경이 쓰이는 것. 체육과 교교부교관하는 생도 (?) 에서 아무쯤 하는 학생들을 보자 점점 학다말고 흐뜨러기를 등 묶듯.

○…5월호일자 SS주간지 표지에 본대학 J과 O양이 들라 「캠퍼스」에 심심찮은 화제꺼리.

이는 백학제일 「미스 ××」 「마이클」 (?) 도 없는데 「미스 의대」라고 해봤으니 비유 기이한 일. 요는 「자심」이냐 「타심」이냐.

○…일부 학생들간에 새로운 학생유행어가 나돈고 있는데말인즉 「카오이즘」. 모과 과장교수님이 지난 5월22일 K대에 특강이있어 제기·과의 수업을 휴강을한데서 비롯되었고…. 특강도 특강이란말 제목만은 「카오이스트」가 되셔서야되겠읍니까.

「카오이스트」되셔서야 되겠읍니까

성희의상실

여성미를 정확히 발산하자!!

성희의상실은 일류디자이너가 여대생의섹상기호와 개성미를정확히판단하여 마음껏 여성미를 발산할수있도록 꾸며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출간 서적안내

| | | | |
|---|---|---|---|
| 노·한사전 | 동 완교수 저 441면 500원 | 중 국 어 (하) | 노동선교수저 265면 300원 |
| 서·한사전 | 에스빠냐어과 680면 1,000원 | 현대 일본어 가이드 | 전기정교수저 180면 250원 |
| 이·한사전 | 이딸리아어과 800면 1,200원 | 초급 일본어 가이드 | 전기정교수저 320면 220원 |
| 국제정치학 | 홍종혁 저 200면 250원 | 초급 이태리 문법 | 허인 교수 저 225면 300원 |

# 작품번역의 문제점

H교수라면 프랑스 문학의 번역으로 일본에서는이름난대가이다. 『셀뤼리 베비의 『인간의 대지』를 덮어놓고 읽긴 그의명어 (?)를 참조하다가, 『덮 난을, 덮주일로, 덮 달을』이란 대목에서, 『주일』이 『슈륜』으로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고소를 금치 못한일이 있다. 원지로 또 몇이 인쇄된 『슈륜』은일본어 음에서는 『주간』과 같은 『수주쟁』이기 때문이다.

번역주의자나 사전이라는 법명이 붙는 정도로 다여자인 그에게는 있음직한일인 것이, 구슬에서 보주를에게 쓰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이 『미』는 빈아 적은 조수의 착각에서 말미암았던고 보면 동정의 여지가없지도 않다.

나의이와같은 추측은같은 작품의역문에서비롯한 『미스』를 다시발견한으로써확증을 얻기에 이르렀다이다. 그리고보면 K씨는 무슨 죽기 외에 희생작업까지 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번역의 희생작업은 우리나라에도 없지는 않은모양 『셀뤼』인속에서도흔히 대상이 된일이있다.

출판사에서는 『에일 벨튜』에 치중하고, 노태가에게는 그만한 시간이나 경력의 여유가 없는데서 온기현상이다. 말하자면 이를 『페이지』도없는 중역본을읽고서 있다. 그런체을 읽어서 무엇인가를 이해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 사람이다. 미구나그 책이 여러 판을 거듭했다는 사실에는 그저 반복할 따름이다.

끝으로 『여보』의 한 대목의 원문과 대의, 그리고 10년 전에 나온 어느 중역본의역문을 들어보았다.

UN PERE, QUAND IL ENGENDRE ET NOURRIT DES ENFANT S, NE FAIT EN CELA QUE LE TIERS DE SA TACHE. IL DOIT DES HOMMES A SON ESPECE, IL DOIT A LA SOCIETE DES HOMMES SOCIABLES; IL DOIT DES CITOYENS A L'ETAT.

(대의=한아버지가 아이들을 낳거나 먹여살리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임무의 3분의 1밖에는 하지 않는 것이된다. 그는 인류에게 인간들을 의무가있으며, 사회에 사귀길성있는 인간들을 길부가있다. 국가에 시민들을 갚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는 중역문=부친이 자식을 양육하는것 만으로는 주어진 임무의 3분지 1밖에 하지 못한 셈이 되며 그가 인류에게 인간을 맡아야 하고 사회에 사회인을 길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는 시민을 맡아이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중역문에서 무엇을 이해했겠어며, 이 표현에서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공감하기만 하다.

## ◇박 은 수 교수◇

# 번역의 맹점들

### 몇날을, 몇년관을, 몇달을

번역에서 일바잔의 『미스』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느 경도 번역을 하는사람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숱한 원고지 칸을 메워나가는 동안에는 단어나 형이나 『센텐스』 를빼어먹는 수도 있고, 피로한 두뇌가 뜻을 잘못 잡는 수도있겠고, 미처 붙라서 뜻을 그르치는 일도 있을것이고, 뜻을 알아도 알맞은 우리말 출현이 생각나지않아 적당히 얼버무려 두는 일도 있을 것이다. 현고가 번역하다 해서 인심이 뒤는것도 아니다. 문섭, 씨자, 교정, 인만등의 복잡한 인쇄 과정을 생각하면, 『미스』만 어느 구멍으로빠져 버려야 주었는 것이다.

예까지 생각하면 번역 공포증이 생겨날지도 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번역 자체의 가능성에도의심은 간다. 그러나 번역을 구하지 못한다 해서 차선까지 포기할 필요은없으니, 번역의 존재가치는 여전히 남게된다 요는 어느정도 원문에 가까와지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한 능력과 성의가 번역자에게 있다면, 그의 본의 아닌 『미스』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능력도 성의도 없이 이 일에 덤벼드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남을 속이는 일이 된다.

그 가장 단적인 예로서 나는 중역을들겠다. 한동안 우리나라에는 중역이 유행한 적이 있어 숱한 웃음거리를 빚어내었다. 대부분이 일본어역을 대본으로삼았으며, 일어잔이야 하는자 부심이 그 원인이 되었었다. 일어를 공부하 흉턱겨 도 많지만, 일어에 자재가 들며, 장남 따라 장 가는 식이 된 것이 더 많았다. 한 작품이 외국어로 일단 옮겨지고나면,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이미 그작품은 병이 들어 있는 것이다. 여자로 치면 시집간 셈이다. 더러지 중역은 중혼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을 번역에는 그것나름의존재가치가 있을을 부인할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다시 다른 번역의 원천이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중혼한 여자에게서 처녀 때의 모습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가령 앞서 인용한 일어역을 대본 삼아 중역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이 요약해질 일이다. 현대 그때에는 더다하다. 심지어 뜻만을 빌려주는 셈이다. 차지 않는 보수를 여러 곳에서 빌꾸어고 꿔어다니는 그본들의 치지에 공감이가도 하지만, 경제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나라들에도 이런 일은 있는 모양이니, 그렇인은 반도시를에만 있는것도 아닌성 실이다.

◇…매년 10월 본사 주최으로 실시되는 『의…◇
◇…대 문학상』에번역 부분이 신설되었다. …◇
◇…문단의 호평에 발맞추고 본대학의 언어…◇
◇…불 연구하는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시…◇
◇…키기 위한 의도하에서 신설된 번역부…◇
◇…본에 제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
◇…랍니다. 번역이라는 자체가 문법과 사전만…◇
◇…으로 해결되는것이 아니기에 항상 문제…◇
◇…점은 따르게 된다. 여기 외국문학작품…◇
◇…번역에 있어서의 맹점들을 파헤쳐본다. …◇

## ◇박 희 영 교수◇

# 번역자의 자세

### 능력과 성의를

많고 많은 외국의 작품들이 이미 번역되어 나왔다. 훌륭한 학전을 갖고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번역자는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그럼에 내가 여기에쓰고자하는 것은 외국어를공부하고 있으면서 지금부터 번역을 하려는 학도에 주로 기울 수 있는 문제를 다뤄보기로 하겠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번역의 일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문법을 알고 사전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뜻밖의 많은 학도들은 『나는 지금 위대한 번역을 하고있지 않지만 『뒤』 만 위면 언제든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느낀다. 나도 역시 대학시절에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외국원문을 읽고 『실제로』 원고지에다 그것을 옮겨보아야 비로소 번역의 맛을 안다. 원작자의 뜻이 과연 『올바르게』 이해되어서 『충실하게』 우리말로 옮겨졌는지를 그 때야 비로서 알것이다. 한필음 미 나아가서 원작자의 영감(靈感)이 자기도 모르게 상실되어 버렸거나 또는 흐려진 것이 되어버리지나 않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속으로 『습』 이었던 것이다. 종양의 성현공자의 뜻하신바 한줄의 글이 올바르게 해독될 때까지 나는 무려33년의 세월을 요한 것이었다. 하마트면 그 뜻에 무식한채 이 지상의 생활을 할 뻔 했던 것이다. 『대학』 에서 『물격치지』 라는 『중심하게』 번역되었는지 『올바르게』 번역되었는지 『습』 이었던 것이다. 종양의 성현공자의 뜻하신바 한줄의 글이 올바르게 해독될 때까지 나는 무려33년의 세월을 요한 것이었다. 하마트면 그 뜻에 무식한채 이 지상의 생활을 할 뻔 했던 것이다. 『대학』 에서 『물격치지』 라는 『중심하게』번역되었는지 『올바르게』번역되었는지 『습』이었던 것이다.

『대학』 한가운데에 특별우속에 배열은 부분의 개어지려 오는 바위들이 있다』고 번역했으면, 그것은 일단 불문법을 아는사람이 번역 했다고 볼수는있다.

그러나 이 번역문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테쓰또스 배운바를실천해 놓은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가 그을 바른 번역이었다. 입으로, 극히 개념적으로 해석하고 책장을 넘겨버린 결과는실 지로 원고지에다 써보아야 한다.

### 번역의 지도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다. 14세때 배운 논어의 맨 첫장에 『학而時習 不亦樂乎』라고 있었다. 서당에서는 『배워서 때때로 익힘은 또 즐거운 일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때 어린 나로서는 『학』 (배움) 은 모르는 것을 깨쳐 배우는것이고 『習』 (익힘) 은 배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 복습해보는 것으로 알았다.

그후 30여년동안 나는그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나에게는 『학』 도 별로 다룰바 없는 많은 남맛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극히 최근에, 정확하게 말해서지난 겨울에못소는 서부오때문 시험지 낡은 신문지의 뭉치로 묵묵방 술을대우고 그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다가 갑자기 이는 어의 귀절이 생각났던 것이다. 『習』 은 어미 학습이나 복습의 『習』 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습』의 『습』이 었던 것이다.

학문에서 배운 이론의 『실천』, 『실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가 그을 바른 번역이었다. 입으로, 극히 개념적으로 해석하고 책장을 넘겨버린 결과는실지로 원고지에다 써보아야 한다.

### 적극적 자세

모든 문장은 반드시 만인에게 이해되길을 뛰어진 것이다. 『그중 일부분만 독자에게 알려지면 된다』는 희망에서 글을쓰는 작가는 결코 없을 것이다. 모든 작자의 소원은 자기의 글이 『천천하게』 『아낌없이』 독자에게 전달되는것이다. 그래서 『이』를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고 『독자연』스러운 자기의 번역문에 때면할수는없다. 다음 관계대명사가 있는 짧은 불문을 보라.

Au milieu de l'ocean se trouvent des rochers contre lesquels les navires viennent se brisez dans les tempetes.

이것을 번역하는데 만일 이해되지 않았던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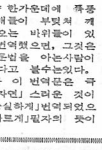
이것은 아래와 같이 번역되어야 옳았다. 즉

『대양의 한가운데에 몇개의 바위가 있는데, 특풍우가 불때면 선박들이 와서는 거기에 부딪쳐 깨어진다』 하고.

### 충실하고올바르게

나는 앞서 원작자의 영감까지 전달되어야 완전하다고 말했다. 위에 예시한 이 문장 중을 부고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있다.

즉, 이 비록불라를에서 독자는 그나름으로 하나의 힘찬 감회를느껴야한다는것이다. 즉 『시에마스로우즈』의 음장한 한줄지어는장면을 번역자는 연저상상에으로 체선시상이 있어야만 완전한 번역이 가능할것이다. 먼저일은 파도치는바다가 머리속에 떠상아나고 그다음에 (부산사람 작으면) 오륙도같은 오랜 풍우에시달린 한고한돌림이이리에 떠올라야할것이다 갑자기하늘이 먹구름으로 씌여진고 열리의 장면처럼 무서운바람소리와함께 신마이처럼거북하는 노인과도 휘들어치는 비말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려오는 배들이 『마스트』



『대양 한가운데에 특풍우속에 배들이 부딪쳐 깨어지려 오는 바위들이 있다』고 번역했으면, 그것은 일단 불문법을 아는사람이 번역 했다고 볼수는있다.

그러나 이 번역문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 테쓰또스 『출실하게』번역되었는 『올바르게』필자의 뜻이 가 부러진채 기적소리를의 듯이하여 탁아오다가 바위에 부딪치깨어지는 처참한 광경을 상상으로 연출시킬 수있어야함겠이다.

이것은 흔연으로써 아무에게나 되는 일이다. 이런 데 필요한 상식을 기르려고 우리는 소설을 읽어봤고 그 영화를 보아왔던 것이다.

### 시대와 사상적배경을

이와같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예를 보라. 약 9년전에 일어나, 센질하는 동양사의 학자인 K교수가 영문으로 된 『하텔·포루기』를 읽다가 아무리 해석하여도 모르겠다고 나에게 왔다. 나는 전공이 영어·영문학이니 『모르겠다!』고는 할수없는 막한 처지였다. 거금 그 원문이 어거에 없으나 대략 이러한 요지의 대목이었다. 즉 『하텔』의 일행이 탄 배가 중국의 어느 항구에 기항했을 때 『오랑캐』의 배를 불태우자고중 학자들은 혓보을 치켜올고 덮을 내리고 절박한 『하텔』들의 배를 향하여 수심의 작은 어선에 분승하여 달려오는 것이었다.

시시각각으로 박아오는 위기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고 있었다. 급하고 급하다! 『그러나 바다가 잠잠하여 도저히 배는 떠날 가망이 없었다.』고 되어 있었다. K교수의 의문은 『바다가 잠잠하여』에 있었다.

나도 영심의 전후관계를 살피며 읽어보았는데도 도무지 이해가가지않았다. 세번, 네번 침착하게 읽어보았다. 그럼에도 이 나는드디어 시대적배경속에들고들어간수 있었던것이다. 때는 17세기라 그놈리배는 아직 반돛선이아닌 유체범선이었던것이다. 바다가 잔잔하면 바람이없는것을 의미한다. 이 때는 바람을 그돛에 받아야만 움직일수있는 것이었다. 나도 여러번여자선이 K교수앞에서 위기를 면하고 체인 (?) 을유지할수있었다. 그럼에 앞서말한바 『시대적』배경이 형이하학적인 영감과 관련이있다면 면사상적배경 형이상학적인 영감과관련이있다고 볼수있다. 다음의영문을 지금부터 번역하려는번역자의 자세에서 읽어보라그것은 복음성서중에서도가장아름다운 한대목이다

Martha therefore said to Jesus, "Lord, if thou hadst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even now I know that whatever thou u shalt ask of God, God will give it to thee."
Jesus said to her, "Thy brother shall rise."

Martha said to him, "I know that he will rise at the resurrection, on the last day."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 elieve in me, even if he di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st thou believe this?" She said 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hast come into the world."(St.John, 11: 21—27)

즉의 장면은 Lazarus 가 이미 죽었지 나흘이 되면날짜 늦게 그곳으로 찾아온 예수를 만나그의 애원하는 누이 『마르따』와 예수와의 대화다. 번역자는 먼저 그 장면에 입회하여 같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으면서 그 내용을 실감하고 있어야한다.

『주여서 여기 계셨던들 내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슬픔에 찬 『마르따』는 분명히 우는 목소리로 『원망하듯이』 말한것이다. 이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 하는 예수의 말은 무게가 있고 『찬밥없는』 말인데도 time and space 의 지배잠 벗어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그때서 『이세상살아나는 날부활해에 다시 살아날줄은 나도 아니이다.』 했을때의 『마르따』의 말에는 『그러나 지금…지금요!』 하는 원망과 불만과 일종의 반항이 섞여있다. 여기서 인간의 차원에서 이뤄질수있는 대화는 끊어진다. 그러나 인자한 예수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신을 인제까지나도 이러키지나 참아주는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이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너 이것을믿느냐?』 애원하듯이 거의 빌다시피 『마르따』의 손을 잡고 예수는 가르치는 한참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그러나 이때 언어를 초월한 언어 영감(靈感) 이 『마르따』의 가슴을 찔러 열어준다. 인간의 지식의 차원에서 신의 지혜의 차원으로 비약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마르따』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한다. 『주여 그러하외다.』

스승은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성자이신줄을 믿나이다!』 라고.

그런데 여기서 위의 원문을 다시한번 잘 읽어보자. Christ 에 the가 붙어있다. 그것은 성서를 조금만 잘 읽은 사람이면 그 이유를 알것이다. 구약성서에 하느님의 아들을 자칭하고 많은 거짓 Christ가 이세상에 출것이라고 예언되어있다. 그런데 the는하느님이 친히 약속한 틀림없는 『그』 Christ를 뜻한다. 』 영어 who hast come into the world라고 『현재한료가 되어있는 것은구세주로서 이 세상에올 Christ의 내림은 『현재로서완료』 했으므로 오고지 이분 뿐이요, 앞으로는 오시는이가 없음을 단정한 것이다. 또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과거) 살아날것이요 (미래) 또 살아서 (현재) 나를 믿는 (현재) 모든이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미래) …』 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Christ 는 자유자재로 지배하고 있음을 본다.

Chsist는 time and space를 자기손안에 소유한불멸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또 space를 두고 말하드라도 time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세상을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고려

# 올바르고 충실하게

### 원작자의 영감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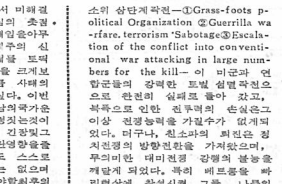
그때서 『이세상살아나는 날부활해에 다시 살아날줄은 나도 아니이다.』 했을때의 『마르따』의 말에는 『그러나 지금…지금요!』 하는 원망과 불만과 일종의 반항이 섞여있다. 여기서 인간의 차원에서 이뤄질수있는 대화는 끊어진다. 그러나 인자한 예수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신을 인제까지나도 참아주는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것이요.

그때서 『이세상살아나는 날부활해에 다시 살아날줄은 나도 아니이다.』 했을때의 『마르따』의 말에는 『그러나 지금…지금요!』 하는 원망과 불만과 일종의 반항이 섞여있다. 여기서 인간의 차원에서 이뤄질수있는 대화는 끊어진다. 그러나 인자한 예수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신을 인제까지나도 참아주는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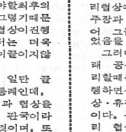
### 작품의 사상속에서

다시한번 예시한 본문에 들아가자. 이글은 죽음과 삶이란 큰문제를 소재로하여 신과 인간이 죽히 소박하게 그리인서도 불과같이 뜨거운 열정과 마분여 한전부문과의 또 아름답게 대화하는 장면으로서 이이상 더 인상적일 수가 없다.

장면을 우리는 번역하기전에 가슴속에 그려보아야 한다. 비약하므로 불경하므로 현재에만 집착하는 『마르따』가있고 『무궁세』 『영원』 『영생』을 잘알고 거기에 적응한 예수가 그것을 부지한 인간에게 가르치려는 예수의path os가이 짧은글에 겹손하게 감추어 져있는것이다. 나는앞서서 『사상적』 배경이란말을 썼다. 이글에서는 예수의지향하는 『영원한생명』이 바로 그것이다. 빈약에 이 『영생』의 사상을 모른다면이 글의모든 낱말과 문장구조를 잘알았드라도 이글의전한 빈약은 불가능한것이다. 이제부터 원문의 번역을 시작하려라!



오늘의 매발



신 형 식

<문 화 사>

1. 현학 국제경제하에있어서 미해결의 문제중 가장주목과관심의 촛점·이 되고있는것이 월남사태일을아무도 부인할수없다. 매일 미주의 신문뉴스 잡지등이 월남문제를 토떡으로다루고있고, 파리협상을 르게보 토하고 있음을볼때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개재되고있는가싶다. 이번의 월남협상은 비단 월남적국간은 병이나 등장의 장래를결정짓는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동서의 긴장및그 관계에이르기까지에 커다란영향을 주었기때문에 이느 일전도 스스로의 입장과 주장을들일수는 없으며 각기의이해관계를 지켜야할처우의 관욱이필연지도모른다. 그럼기때문에 파리에서는 일면에 협상이진행되는가하면 일면 월남에서는 더욱 지루하고도 격심한 전쟁이일어지달는지도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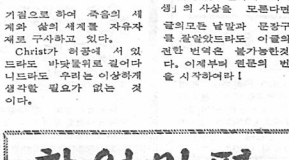
현재 협상이란 전쟁을 일단 끝이고서 시작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의 파리협상은 전쟁과 협상을 동시에 계속하는 비이한 관욱이라 문제는 더욱 복잡한 것이며, 또 미국·월남·월평및 베트콩이 각기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가 있어, 그 속에서 잠재되어있는복잡하고도미묘한긴려이협상을 마욱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역사적인 파리협상이 온 세계의 기대와 흥분, 희의의 불안속에서 열린후 아무런 진전없이 이연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5월에 접어 들면서 침체와 공전을 벗어나 『진지한 협상테도』라는 신문기사의 표현과 같이 진지가 바뀌 들아가고 있는 듯 싶다. 이에 파리협상이 이루어 진 배경과그내용을 들여다 보고 , 또 그것이 다분히우등적이고도 비현실적이지만 우리나름의 귀추를 점 쳐어 볼 까인다.

왜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리해의 전쟁 격으로부터 이약을고 며해서 현상유지를 기지로한 공산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려는것으로말며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6·25에서도 나타났고, 이어 프랑스가 남긴 『슬픈 유산』인 월남에서도볼수 있었으나, 현하 중공의 핵구축이 이 남조선 일파는 중남아에서의미국의 투쟁개입은 달연한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공의 대비 전쟁이라는 심각한 질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개입은 역사적 필요에부응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68년 5월13일 파리협상이 개시된후 미국은 만월의 전사자를 낳아왔게 한국전에서의 인명피해를 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비둘기파』를 위시한반전론이 비등하게 되었고, 당시 일기반표를 눈앞에 둔 『존슨』 대통령은국회인조치로서의 폭격중지를 통해협상을 추진한 것이었다.

현전 월평속도 국방상 『지갑』



# 학원만평

철늦은 봄

서로 눈치만

# 빠리월남협상의궤추

1. 현하 국제경세하에있어서 미해결의 문제중 가장주목과관심의 촛점·이 되고있는것이 월남사태일을아무도 부인할수없다. 매일 미주의 신문뉴스 잡지등이 월남문제를 토떡으로다루고있고, 빠리협상을 르게보 토하고 있음을볼때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개재되고있는가싶다. 이번의 월남협상은 비단 월남적국간은 병이나 등장의 장래를결정짓는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동서의 긴장및그 관계에이르기까지에 커다란영향을 주었기때문에 이느 일전도 스스로의 입장과 주장을들일수는 없으며 각기의이해관계를 지켜야할처우의 관욱이필연지도모른다. 그럼기때문에 파리에서는 일면에 협상이진행되는가하면 일면 월남에서는 더욱 지루하고도 격심한 전쟁이일어지달는지도모른다.

현재 협상이란 전쟁을 일단 끝이고서 시작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의 파리협상은 전쟁과 협상을 동시에 계속하는 비이한 관욱이라 문제는 더욱 복잡한 것이며, 또 미국·월남·월평및 베트콩이 각기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가 있어, 그 속에서 잠재되어있는복잡하고도미묘한긴려이협상을 마욱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역사적인 파리협상이 온 세계의 기대와 흥분, 희의의 불안속에서 열린후 아무런 진전없이 이연 1년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5월에 접어 들면서 침체와 공전을 벗어나 『진지한 협상테도』라는 신문기사의 표현과 같이진지가 바뀌 들아가고 있는 듯 싶다. 이에 파리협상이 이루어 진 배경과그내용을들여다 보고 , 또 그것이 다분히우등적이고도 비현실적이지만 우리나름의 귀추를 점 쳐어 볼 까인다.

왜의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리해의 전쟁 격으로부터 이약을고 며해서 현상유지를 기지로한 공산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려는것으로말며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6·25에서도 나타났고, 이어 프랑스가 남긴 『슬픈 유산』인 월남에서도볼수 있었으나, 현하 중공의 핵구축이 이 남조선 일파는 중남아에서의미국의 투쟁개입은 달연한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미국과 중공의 대비 전쟁이라는 심각한 질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개입은 역사적 필요에부응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68년 5월13일 파리협상이 개시된후 미국은 만월의 전사자를 낳아왔게 한국전에서의 인명피해를 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의 『비둘기파』를 위시한반전론이 비등하게 되었고, 당시 일기반표를 눈앞에 둔 『존슨』 대통령은국회인조치로서의 폭격중지를 통해협상을 추진한 것이었다.

현전 월평속도 국방상 『지갑』


## 민의자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니또는 우주관이나 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굳혀진나름대로의 생활신조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생활신조가 사소한 한가지 일이 갑부리가 되어 의부로 부터 뜻하지 않은 수평을 강요받을때—선의에의한것이긴 하나— 감시영거주를 하여 버릴거리게 된다. 나아가서는 일종의 모욕감조차 느끼게 되는 수도 있다.

바로 이점은 자기의 생활신조를 확전히주관적인것으로서 별다른 마음속의 여과작업이 없이 그저 즉고 맹연한 것으로 믿어왔거나 외부의영향 물론자기자신도 결코 기뜨릴 수 없다는 막무가내의 응고집에 사로잡려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사실한 사람의 성장과 함께 몸에 배이다싶이 지녀온 관념을 단번에 고치기란 힘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러한 관념의 테두리안에서 생각하고살게 행동을 해온관계로 하나의 습관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관적 고정관념은 그관념 자체가 객관적으로 옳건, 그르건 간에 외부로 부터 부딪치오는 갖가지 사건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선입관이 되어 난공불락의 장성을 이루는가 하면 성격에 따라 처음부터 아예 외피해버리는 경향도 있다. 생활신조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요는 내적인 소용돌이를 어느정도 이렇게 가라앉이 얼마만큼 새로운 자신을 일구어나가느냐가문일 이라이 결정적인 자기의 혁신만이 한층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진다는사실이 중요하다.

비록서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받아들이는건 아니다. 표면상 타협할길이 없이 경향선상을 벗어는 이날는정도로 뛰 올라서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머리를 기울여보는것이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자세이다. 고립해서존재만으로 살을영위 해나가지 못하는게인간이고 인간이기에 이처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늘 환경의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것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해서 한세상을 살아 두려면 어울리게되고 그어울리는 정도에비례하여 보다나은 자기 발전을 기할수 있는 것이다.

비록서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받아들이는건 아니다. 표면상 타협할길이 없이 경향선상을 벗어는 이날는정도로 뛰 올라서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머리를 기울여보는것이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자세이다. 고립해서존재만으로 살을영위 해나가지 못하는게인간이고 인간이기에 이처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늘 환경의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것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해서 한세상을 살아 두려면 어울리게되고 그어울리는 정도에비례하여 보다나은 자기 발전을 기할수 있는 것이다.

# 조용한 선거를…

## 학원선거정화 「캠페인」

◇……1969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예년과는 달리 표면에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술렁임」이 없다. 그러나 5월31일로 입후보……◇
◇……자 등록이 마감되고 6월9일 투표로 들어간다는 선거공고일정……◇
◇……이 나붙자 자천 선거원이기는 커녕, 본사를 비……◇
◇……공하여 일부 「써클」에서 벌이고 있는 선거정화운동의 영향인지……◇
◇……크게 「아반스러운 면」은 없어도 5, 6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은 대학 주위를 맴돌며 목표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수투……◇
◇……본과학생 세명으로부터 금년도의 선거양상과 입후보자로서, 또한……◇
◇……당선자로서 취할 자세에 대하여 「앙케이뜨」를 받아본다. ……◇

<선거분위기는 한산하기만>

### 앙께이뜨설문

①금년도 선거분위기에서 느끼는점은?
②입후보자 들이나 당선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김희영 군
(대의원회장)

### 신중기하는 입후보 공복임을명심해야

①예년에 비해서 선거「붐」이 훨씬 높게 시작되는것 같다. 작년도 부정선거에 대해 학교당국의강경한 조치에 의한 여파에 기인해서인지…

선거 일자가 공포 되었는데도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입후보자가 없는것을 보면 모두가 선거 운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것같다.

②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은 정직과 정책 대결로 선거를 치뤄야지, 본수에 넘치는 자금을 동원하여 선거를 해서는 안될것이다. 대학생활이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위한 준비 단계라면 우리는 기려이 이상적인 심념에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것이 옳지 않다.

●——김영호 교수
<본보주간>

### 별움직임 없어 제발잠음었 이

①이제 얼룩남겨하면 투표를 한다는데 아직 이렇다할 분위기형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예년같으면 지금쯤 부회 가열된 출직일이 눈을 서를게 했을텐데 모두들 약간씩의 신경을 기울여 주는지, 아니면 음직임이 속으로 스며들었지 자세히는 모르나 여하튼 예년에 비해 조용한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②제발 이번 선거는 정정당당하게 잡음없이 치뤄주었으면 좋겠다.

●——김석주교수
<교수처장>

### 평온한것 같다 나쁜인상씻도록

①아직 등록 마감도 되지않고 선거원선도 하지않아서 어떻다고 말할 수없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비교적 평온한것 같다. 내귀가 어두운 탓일지도 모르지만.

②학생회 운영을 통해서 좋은점은 선거분위기에서 느끼는점은?

●——문형보 군
(현 학생회장)

### 정화운동이주효 선하게 경쟁토록

①작년의 선거는 도를지나친 과열된 분위기였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올해의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분위기는 입후보자들이 자각도 했겠지만, 지금 벌이 는 일련의 『학원선거정화운동』이 주효하는 듯한 인상이다. 물론 선거일정 일주일이겠지만, 이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되면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리라 믿겠다.

②선거권자는 지성인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입후보자는 좀 더 맺혔한면으로 경경해야 되겠다. 만일 금년에 의지해 당선되고자 한다면 경경이 이어선거는 「의리 의상을 벗게 될것이다. 또한 그것은 당선후 자기자신에도 많큰제약을 주리라 믿는다.

●——김숙희양
(의교과 4년)

### 보기싫었던선거 명실상부한자를

①해년 선거때면그때마다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핏덩음 (?) 들의 난립에 시달려야만 했던나는 이번선거에는 모든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도싫고, 듣기도싫고, 말하기도싫어 눈필고귀덕고깊어러가 뒤리마고마음먹어왔다. 그러나 예년과다른 선거분위기는 의아하게조차 반짝였다.

매우 고요하고 조용한분위기이다. 평상시의아 탈한 외대분위기그대로가 유지되고있다고 생각된다. 과거몇년을 참고삼은 각 입후보자들의 선거책의 하나인지도 모르지만. 이때한 시끄러움도없을수없는것은 사실이고다행한일이다. 다만 투표인의하나인 「나」가그리고무리를이룬다는 어떠한거짓이 있어서는않겠것이다.

②입후보자들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입후보 등기부를 중요시 여겨야 하겠다. 그리고명료하게 현실성있고 통시에 전설적이고 생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하겠다. 한 주일, 한 달에 할 수 있는 선심을, 1년에 걸쳐 선전하기 쉽지하게 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이러한 사람만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대는 15두 등안 자라왔고우리는 그만큼성장되어 있는 것이다.

## 「마술사의제자」주변

김·창·활·등문과 잠깐…

한국일보사와 국단 신협이 제휴하여 모집한 장막희곡에 본대학 5회 독일어과 등문김창효씨의 작품 「마술사의 제자」가 당선되어 국제에 발표를 보게 되었다.

김등문의 「프로필」과 작품의 주변을들어본다.

「시와 희곡에는 별은물이 끼어들 수 없고 그럴것이 끼었다면 그건 이미 흘리간 보석이나 마찬가지 마는 에거다. 그러고 그럴것이 없어져는 곳은 역시 시에서 보다도 희곡 이라고 김등문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김등문은 본교 불문문은 68년과 69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에 입선한바 있다. 68년도 입선작인 「박제된 인간」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고, 몇몇 대학에선 교재로 쓰고 있으니 김등문에게 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듯 싶다.

「이번 <마술사의 제자>는<밤에 그린 자화상>재학시절 지를 썼고 졸업한 직후엔 장편소설 (초대 밀지않은사람들) 을 써 조선 일보 정려소설모집에 당선작 없는 가작 입선을 한 일도 있다.

「당선운이 없었던지 신춘 문예에 응모했던 희곡들은 입선만되며로요.

그래선 이번엔 조리를하 후 걸러 쓴다시피 하여 내리 두달간을 작품과씨름 했음니다. 』

「물론 방황했겠지요. 새로운 자심을 찾아서요. 그방황의 과정을 어떻게 요리하나에 달려서 제 예술의 성패는 결정날겁니다.』

김등문은 남의 작품도를 읽는데 그내부분이의 국작가의 작품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린 비적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했던것 같고 그래서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실토를 하자면 이번당선작은 조그마한 작품일나다. 욕심을 뭇부렸어요. 몇번 응모했타가 실패를 보고선 어떤 용기못한 전의였죠. 그렇지만 이제 부림은 그런거을 남치 않겠단다 의욕이 내연하는김등문은 이 무리에게 주는 공약이었다. 가슴 공연작품으로는 비중인 김등문의 신작에우리는 앞것 연기대를 걸어도 좋을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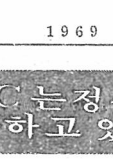
6월 18일부터 국립극장에서 극단신협이 공연할김등문의 당선작「마술사의 제자」에 기대를 걸어본다.

## 내면의 욕구를 형상화 6월중순 신협이 공연

## 「피의 결속」재다짐 요청

### 일본은 당분간 제외해야

—미국도 군맹체로 성장원해



《김 효 윤》
(의 교 과)

그리도 먼모를 갖춘 국제기구로서의 「아스파」은 우리의교사상 전대미문의 「흠덩」이다. 표한이것이어느 한계인의 「아이디어」와 좋기한 파격과의 결경에서은 칭찬해주고 싶지 세계속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니쉬어티브」를 쥐고 금방 대양으로 출비한듯한 국내외의 찬사도 「씨게일」이 일단부의은동장장경이 허전하기만하다. 「아스파」에 대한 하나의 즐기찬 질법으로 방위기구면에서살펴보기로하자.

아주및 태평양지역 각표회의 (ministral meetings of the asian & pacific counci Aspac) 가 전이등원의부장관에의해서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유지하고 결과하는 화목기합에 대처할 최전을상호고찬할수있도록 1965년3월서울에서 외상회의를 갖자」 고제창되었다.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이 해결」을 내걸고 1964년 9월 태국의상 「아나트·로만」의 제각 호응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1965년 3월11일부터 「방콕」에서 제1차 9개국 대사급 예비회담이열렸다. 우리의 한일회담마결, 국군월남파병, 박대통령의 동남아 순방후, 1966년 4월제2차 「방콕」 예비회담에서 한국, 태국, 자유중국, 일본, 월남, 「필립핀」, 「말레지아」, 호주, 「뉴질랜드」, 「파오스」 (「왕국버」) 의 10개국 대표가 참가해서 아주및 태평양 각표회의를 6월 14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갖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 중공에 대한 건계 방법의 견해차이등으로 이번 각표 회의에선 정치적, 군사적 색채를 띄지 않고 경제문화등 온건한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자는 주장이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회의가 출현하게된 국제정치적인 배경은 「유엔」 헌장에도 규정되어있는 지역적협력체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아직껏 존재하지않았다는데 우리, 지역적 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할때였는것 같다. 이와같이 처음 출발부터 3차회담에서까지 결실보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스파」 내에 방위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경세 분석과 아울러 제기해 보려한다.

과연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방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것인가 좋공렬상기도, 「필립핀」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려는 움짐, 「아스파」 창안자의 의도나 1, 2, 3차의 공동 「컴뮤니케」에서 거듭강조되는 「아시아및 태평양의 자유국가들이 어떠한 공산침략이나 침투에 대항하여서도 그들의 국가독립과 보전을 수호하고…」를 서투에 인급한 방위조약기구로서의 출발이 일본의 재치있는 정경분리의 대중공 북괴정책에 거저되고 말았다. 여기에 다시한번 우리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스파」 내에 방위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경세 분석과 아울러 제기해 보려한다.

과연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방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것인가 좋공렬상기도, 「필립핀」의 독자노선을 추구하려는 움짐, 「아스파」 창안자의 의도나 1, 2, 3차의 공동 「컴뮤니케」에서 거듭강조되는 「아시아및 태평양의 자유국가들이 어떠한 공산침략이나 침투에 대항하여서도 그들의 국가독립과 보전을 수호하고…」를 서투에 인급한 방위조약기구로서의 출발이 일본의 재치있는 정경분리의 대중공북괴정책에 거저되고 말았다. 여기에 다시한번 우리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스파」 내에 방위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경세 분석과 아울러 제기해 보려한다.

과연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방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것인가

## ASPAC는정상적인 발육을하고있는가

### —지역방위기구는 어디로—

《김 효 윤》
(의 교 과)

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월개의 산하기구만 이남아서 키가는 「아스파」는 정말로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는가!

또한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아시아자유국간의 안전보장, 한국의 북괴도발, 미군의 월남철수, 태국의대일본은 앞으로도 오랫동안은 자기국가방위의 방위1차를 제, 관심밖의 일일것같고, 미국도 「아시아」에서의 군사문제는물론 경제분야까지도, 그저 미국이 자기를의 필요, 음도에 따라 박연의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의 세계 경찰국가로서 특은현조약기로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대관망할것인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아시아화」를 원하고있는한, 관철시키야 한다.

1, 「아스파」 내에 한방위기구 「센타」를 설립함으로서 순수한 군명제의 여러문제점에 의해 천열되기쉬운 반면, 이것을 협법보안할수있는 산하기구에 의해서 성공가능성이 크다.

(산하기구로 사회문화 「센타」 식량비료 「센타」, 경제조정 「센타」 등등)

2, 미국이, 이상적인 「아시아는 아시아인으로」 가현실화 반대하거, 아시아각국과의 상무제인 방위조약이 지속되는한,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아스파」 본래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일본은 방위기구 「센터」에서 만은 제외되어야 한다. 대장상선과 통상을 하고 있는 이상은 아마 힘들겠으로 앞려 지금이나 앞으로도 충분히 자국방위력이 가능한것을보면 구태여 욱여넣을것 없다.

4, 아직까지도 지역방위체제가 틀이갖추는는 여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이다. 베 공동성명마다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3차회담에서도 「공동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이지역 자유국들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의 의식을 갖조」함으로써 언제든지 실치가능성을 보여주고있다.

「너슨」도 솔마전이 「아스파」의 단명제를 원했고, 주의 정부도 다시 좀더 국제적세력의 회원국간에 두었어 자국의 이익이고, 안보의 「밸런스를 세웠다 공동과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좀더 기동성있고 신빙성있는 굳건한 「아스파」방위체제로 북괴대항은 물론 미국 눈앞에 다가 오는지도 모르는 조국통일을 「Pax-Korea」를 누려본도 어떨까.

## 「아스파」는 어디로



《김 효 윤》
(의 교 과)

그리도 먼모를 갖춘 국제기구로서의 「아스파」은 우리의교사상 전대미문의 「흠덩」이다. 표한이것이어느 한계인의 「아이디어」와 좋기한 파격과의 결경에서은 칭찬해주고 싶지 세계속의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니쉬어티브」를 쥐고 금방 대양으로 출비한듯한 국내외의 찬사도 「씨게일」이 일단부의은동장장경이 허전하기만하다. 「아스파」에 대한 하나의 즐기찬 질법으로 방위기구면에서살펴보기로하자.

아주및 태평양지역 각표회의 (ministral meetings of the asian & pacific counci Aspac) 가 전이등원의부장관에의해서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유지하고 결과하는 화목기합에 대처할 최전을상호고찬할수있도록 1965년3월서울에서 외상회의를 갖자」 고제창되었다.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인이 해결」을 내걸고 1964년 9월 태국의상 「아나트·로만」의 제각 호응으로 시작되었다. 그후 1965년 3월11일부터 「방콕」에서 제1차 9개국 대사급 예비회담이열렸다. 우리의 한일회담마결, 국군월남파병, 박대통령의 동남아 순방후, 1966년 4월제2차 「방콕」 예비회담에서 한국, 태국, 자유중국, 일본, 월남, 「필립핀」, 「말레지아」, 호주, 「뉴질랜드」, 「파오스」 (「왕국버」) 의 10개국 대표가 참가해서 아주및 태평양 각표회의를 6월 14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갖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 중공에 대한 건계 방법의 견해차이등으로 이번 각표 회의에선 정치적, 군사적 색채를 띄지 않고 경제문화등 온건한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자는 주장이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회의가 출현하게된 국제정치적인 배경은 「유엔」 헌장에도 규정되어있는 지역적협력체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아직껏 존재하지않았다는데 우리, 지역적 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할때였는것 같다. 이와같이 처음 출발부터 3차회담에서까지 결실보지 않고 「아스파」 내에 방위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경세 분석과 아울러 제기해 보려한다.

과연 앞으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방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것인가

## 「마술사의제자」주변

김·창·활·등문과 잠깐…

한국일보사와 국단 신협이 제휴하여 모집한 장막희곡에 본대학 5회 독일어과 등문김창효씨의 작품 「마술사의 제자」가 당선되어 국제에 발표를 보게 되었다.

김등문의 「프로필」과 작품의 주변을들어본다.

「시와 희곡에는 별은물이 끼어들 수 없고 그럴것이 끼었다면 그건 이미 흘리간 보석이나 마찬가지 마는 에거다. 그러고 그럴것이 없어져는 곳은 역시 시에서 보다도 희곡 이라고 김등문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김등문은 본교 불문문은 68년과 69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에 입선한바 있다. 68년도 입선작인 「박제된 인간」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고, 몇몇 대학에선 교재로 쓰고 있으니 김등문에게 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듯 싶다.

「이번 <마술사의 제자>는<밤에 그린 자화상>재학시절 지를 썼고 졸업한 직후엔 장편소설 (초대 밀지않은사람들) 을 써 조선 일보 정려소설모집에 당선작 없는 가작 입선을 한 일도 있다.

「당선운이 없었던지 신춘 문예에 응모했던 희곡들은 입선만되며로요.

그래선 이번엔 조리를하 후 걸러 쓴다시피 하여 내리 두달간을 작품과씨름 했음니다. 』



「물론 방황했겠지요. 새로운 자심을 찾아서요. 그방황의 과정을 어떻게 요리하나에 달려서 제 예술의 성패는 결정날겁니다.』

김등문은 남의 작품도를 읽는데 그내부분이의 국작가의 작품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린 비적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했던것 같고 그래서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실토를 하자면 이번당선작은 조그마한 작품일나다. 욕심을 뭇부렸어요. 몇번 응모했타가 실패를 보고선 어떤 용기못한 전의였죠. 그렇지만 이제 부림은 그런거을 남치 않겠단다 의욕이 내연하는김등문은 이 무리에게 주는 공약이었다. 가슴 공연작품으로는 비중인 김등문의 신작에우리는 앞것 연기대를 걸어도 좋을것 같다.

6월 18일부터 국립극장에서 극단신협이 공연할김등문의 당선작「마술사의 제자」에 기대를 걸어본다.

## 「마술사의제자」주변

김·창·활·등문과 잠깐…

한국일보사와 국단 신협이 제휴하여 모집한 장막희곡에 본대학 5회 독일어과 등문김창효씨의 작품 「마술사의 제자」가 당선되어 국제에 발표를 보게 되었다.

김등문의 「프로필」과 작품의 주변을들어본다.

「시와 희곡에는 별은물이 끼어들 수 없고 그럴것이 끼었다면 그건 이미 흘리간 보석이나 마찬가지 마는 에거다. 그러고 그럴것이 없어져는 곳은 역시 시에서 보다도 희곡 이라고 김등문은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김등문은 본교 불문문은 68년과 69년에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에 입선한바 있다. 68년도 입선작인 「박제된 인간」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고, 몇몇 대학에선 교재로 쓰고 있으니 김등문에게 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듯 싶다.

「이번 <마술사의 제자>는<밤에 그린 자화상>재학시절 지를 썼고 졸업한 직후엔 장편소설 (초대 밀지않은사람들) 을 써 조선 일보 정려소설모집에 당선작 없는 가작 입선을 한 일도 있다.

「당선운이 없었던지 신춘 문예에 응모했던 희곡들은 입선만되며로요.

그래선 이번엔 조리를하 후 걸러 쓴다시피 하여 내리 두달간을 작품과씨름 했음니다. 』



「물론 방황했겠지요. 새로운 자심을 찾아서요. 그방황의 과정을 어떻게 요리하나에 달려서 제 예술의 성패는 결정날겁니다.』

김등문은 남의 작품도를 읽는데 그내부분이의 국작가의 작품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린 비적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실했던것 같고 그래서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실토를 하자면 이번당선작은 조그마한 작품일나다. 욕심을 뭇부렸어요. 몇번 응모했타가 실패를 보고선 어떤 용기못한 전의였죠. 그렇지만 이제 부림은 그런거을 남치 않겠단다 의욕이 내연하는김등문은 이 무리에게 주는 공약이었다. 가슴 공연작품으로는 비중인 김등문의 신작에우리는 앞것 연기대를 걸어도 좋을것 같다.

6월 18일부터 국립극장에서 극단신협이 공연할김등문의 당선작「마술사의 제자」에 기대를 걸어본다.

## 신규등록써클 그활동의전망

○…6월에 들어서면서 「써클」은자체내의정비…○
○……클모부클내고이에 활동을 위하여 분을었…○
○……기 시작했다. 현재학생회에등록을마친 「써○
○……클」은모두53개. 여기에는 「써클」의 현황……○
○……과선가」 서클의전망을 알아본다. ……○

대부분의 「써클」 담당자들의 소망은 「학생회라」 중공후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써클들」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측의보조문제와 지도교수의 문제를 아울러 들고 있다.

「써클들」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회라 「중공되면 모든 「써클」에 방을 학사에 내주겠다고 공탁하면 학교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KUSA」 만이 남학생휴게실을 빌어쓰고 있을뿐이다. 또한 교수회의 대화의 광장이 필실히 요청되고 있는 요즈음, 각 「써클」 의 지도교수는 거의가 경비 신청서에 도장만을 찍어주고있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써클」 사업은 있는데, 국제무대에 출품되 이겨나갈수 있다는 일종의 「이상한 자부심」 마저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 담당자는 「써클」 문제에 있어 문화인의 진흥이 삶아있기는 증거지요. 내생각에 한국은 좁은 땅에 우수한 시람이 너무 많아서 만도 많은것 같습니다. 국제무대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은 아주 많다고 봅니다.

「leasure time」 있어야휘미생활도 가능하지 않겠읍니까? 그런의미에서 하기휴가는 참좋은기회이겠지요.

이번 하기휴가중인의 선생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시겠읍니까?

「미국으로 갔아해서 여권신청을 하겠읍니다. 예정체로 인되면 을 여름엔 전반남도일대를 돌면서 본래 평경하이 내 직접이나 농촌사회의 음직임과 지방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읍니다. 공식적인 브리핑보다는 탄독으로 살펴보는것이 효과적이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여행얘기를 흔나나지도그만 여행이하고 싶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동문을 찾아서

⑧ 이필웅 씨
<대한전업 회계과장>

대학생활의 사회참여문제는그시대의 환경에따라 종종 야기되어왔다. 학인의자유화만 밑이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학인정리운동을 일삼겠지고 「여덕경주는기존질서를 파괴도는 선동에 그원경주도 적지 않지만그들이 할일을다한후에찾는할 치된양심은국가적 민족적존망위기절구을했다」 또그때기회에서 그 시대의 사회구조와어리면에서 그주류를 형성하고있다할수있는 학생들의 부라심한 태도를벗어나 기성세대의안일과침체기거시오는 부패성에대한어떤 민자주라 감각심을줄일요성 있겠는가」로 맞시고있다. 한마디로 대학입국도 좀더 국국제인지적 인 이이어야겠고 그 「써클」의 담당자들에서 외적인어건에 너무치우치지말고 내적인충실을 기해줄수있겠는가? 라고부탁하고싶다.

올해 신규등록팀인 「써클」은 불교학생회 황마근로회, 마인연구회, 한월상경학회, 미술부 외대 「일하모니아」 태국어회화협회, 상경학회, 법학회 연구회 국제학생협회등 모두11개. 』

## 초지를 일관토록

<이필웅 동문>

## 학내복지에 관심

## 학내 *써클탐방

### 외대 팔하모니아

### 종합 음악발표회도 계획

정회원 84명에문학과 조화도

합창단과 고전음악감상회와 통합

사람은 항상 소리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소리는말자욱, 웃음, 또는 한상적인 발의소리등 여러가지 형체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소리속에서 사람들은 좀더 아끈다운 소리를 원하며, 그것이 단지 귀의 유희만을 위한것이의 미의음악과는거 리가 멀어지고, 자극적인 외국의 「팝송」만을 즐기게 되는 요즘의대학생활에서, 좀더 정서적인면을 추구하는 음악활동은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이제까지 활동해오던 「외대합창단」과 「고전음악 감상회」가 통합되면서, 학교당국의 지원아래 「외대 팔하모니아」로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현재 정회원이 84명.

「팔하모니아는 회원이 모였을때는. 이제 까지는 탄지 모임으로 끝났음니다만앞으로 모는대의 의로 외대 팔하모니아는 음악 탐색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신임회장회장(R·2)군은 말하며비아노 삼중주단조직, 외부 「앙상블」초청음악감상회 등 앞으로의 계획은 말하며10월중순경 종합적인음악발표회를외부에서 갖고싶단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음악감상을 교양을 위한 음악감상, 즉 남에게 앞고 있다는것을 얼리기위한 감상을 희게되는데 좀 미 바른 자세로 들어 주었으면합니다」라 최회장은 말하며 학생은 음악도좋으며, 그음악을 듣는것이마음에 거름이되기를바란다.

그러나 좀더 깊은 음악의 이해를 위하여 이들이 태주 음요일 열고있는 음악 감상회에서 음악해설과 악전에 대한 설명을 했을 이고 있단다.

또한 이들은 음악과 문학의 조화를 위해 외대문학회와 접촉을 자주 갖을 계획이란다.

## 잘꼬대

### 학생회

○…행사청사명 (?)
○…상남도 전담 (?)
○…수지및 식량조정도
○…명예도 중지만…
○…제작생에 대해 배신
○…아는가 모르는가?

### 대의원

○…「미팅」 알선 (?)
○…휴강주선 (?)
○…아무튼및 전담포안내 (?)
○…명예도 중지만…
○…외로운 의결부는
○…누가 지키나

## 보내는마음

Photo graphic Exhibition…

◇…때묻은 다듯잎 등산의 문을열고 어인은…◇
◇…외출을 한다 하절하는 걸음은 어인의가…◇
◇…숨에 쉬고 어인은 조용히 인사를하며지…◇
◇…짝 활문에 보일 푸른 파도를 생각한다…◇
◇…이제 태양은 작열할때고 짝따린의 나팔…◇
◇…뜨 크게울리고 소나기는 거리를 아프도…◇
◇…짝 배팅테지 …◇
사진:방영옥 글:주요식f=5·6·T=2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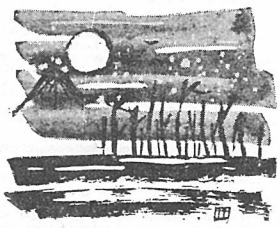
## 봄에 부치는 가을 노래

**에스빠냐어** 루벤다리오:작 김의덕:역

청춘이여!
찬란한 보배, 나의 젊음이여,
너는 이미 떠났구나, 영원히 저 먼 길로.
복바치는 서러움도,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태로 흐르는 건,
뼛없는 눈물.

환희와 비애의 끝없는 생곡선.
흘러간 나의 사랑의 역사는.
발랄한 아가씨였오.
고통과 수난의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그녀는 바라다 보았오, 찬란한 여명처럼.
그녀는 방긋이 웃었오, 샛별간 광미처럼.
흑단같은 그녀의 머리채는 암흑과 고통의 응결이었오.
나는 수줍기만 했다오. 이럼 소년처럼.
새하얀 사슴같이 순결한 내 사랑에.
그녀는 요부였다오…
「헤로데아스」와 「살로메」처럼.

청춘이여!
찬란한 보배, 나의 젊음이여!
너는 이미 떠났구나 영원히 저 먼 길로.
복바치는 서러움도,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태로 흐르는 건,
뼛없는 눈물.
섬세한 아가씨였오, 교태가 흐르는,
애정에 가득찬 아가씨였오, 애교가 넘치는,
반나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없었던,
그러움 내가 만난 그 아가씨는,
끝없는 그녀의 부드러움속으로 뜨거운 격정이 스며들었오.



하늘거리는 새하얀, 「PEPLO」속옷,
슬픈한 여체가 숨어 있었오.
그녀는
품속에 내 꿈을 품었다오.
젖먹이 애기처럼 달래어 주었오.
그러나 조그마한, 애처로운 나의꿈은
깨어지고 말았다오.
광명이 없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청춘이여!
찬란한 보배, 나의 젊은이여!
너는 이미 떠났구나, 영원히 저 먼 길로.
복바치는 서러움도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태로 흐르는 건,
뼛없는 눈물.
무수한 거리에서,
그 숫한 도시에서,
내가 만났던 수많은 여인들은
내노래의 구차한 변명만은 아니오.
모두가 내 꿈의 환상일 뿐이었오.
뼛없는 일이었오.
기다림에 지친 공주님을 찾던 일은,
인생은 덧없 것, 피로운 것,
인생은,
슬픈 것.
이미 노래를 불러줄 공주님은 없다오
뇌졸면 수많은 시간이 뼛없이 흘렀지만
사랑의 갈증은 끝이 없구요.
머리는 희어지고
주름살은 늘었어도,
오늘도 내 발끝은 광미발으로…
청춘이여!
찬란한 보배, 나의젊음이여!
너늙어이 떠났구나, 영원히 저먼 길로.
복바치는 서러움도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태로 흐르는건,
뼛없는 눈물.

## 서반아 모더니즘의 선봉

(1867~1916) 「루벤 다리오」는 「니카라파」에서 출생, 「브라질」과 「에스빠냐」대사등을 지낸 외교관이자 시인으로 19C말 「에스빠냐」시단에 밀려온 「모더니즘」의 선봉이되었고 1896년의 간행된 「프로사스 프로주센느」로서세계적인 인정을 받게되었다 (에스빠냐어과 4년)

## 조국만레몬나무

**조국어** 이지세 옥=역 엔=작

·「전상의 자신」·「전쟁수는 음이 없다」·「인민의 자유」·「무인의」·「자유하지 않는 것이 없다」·「자유의 전쟁」 발명되었다. 지금에 이르기 전 바 인민